Kstat Report 27호 ‖ 2021년 5월 13일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2021년 '흡연과 건강' 관련 국민의식

■ 2021년 '흡연' 관련 국민의식

_ 흡연 '전혀 않는다' 71%, 1년 전보다 3%p 증가
_ 흡연방법: '궐련형' 압도적 비중 유지, '액상형' 소폭 증가
_ 금연정책: '금연구역 지정', '가족 금연권고'만 긍정 평가
_ 전자담배 주도 2040세대, 금연정책 실효성 부정적
_ 궐련형 담배 고수 5060세대, 금연정책 실효성 긍정적

■ 2021년 '건강' 관련 국민의식

_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건강하다' 2년 연속 우위
_ 기대 수명, 80대가 2년 연속 가장 많아
_ 건강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지속 돼
_ 남녀 18~20대, 상대적으로 노력 많이 해
_ 여자 50대, 남녀 60대이상도 노력 많이 해
_ 소득 많을수록 노력 '많이 한다'

■ 건강과 '우울' 경험

_ 조사결과 추가 분석 통한 유형화 결과
_ 유형별 인구특성 분석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5월 7일(금) ~ 5월 9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57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01%p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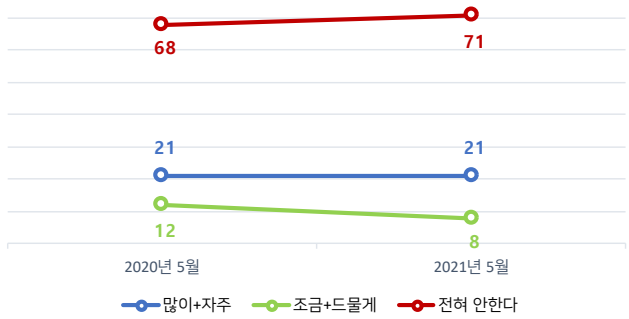
Kstat
케이스탯

2021년 '흡연' 관련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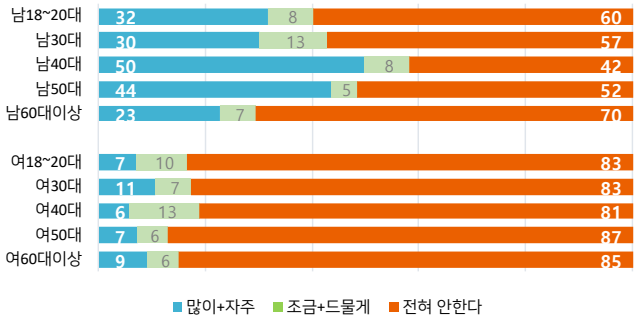
❑ 흡연 '전혀 않는다' 71%, 1년 전보다 3%p 증가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 WHO 지정)을 맞아 흡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먼저 평소 흡연 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 국민 중 71%가 '전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3%p 증가한 수치임
  - '많이, 항상 한다'는 응답과 '적당히, 자주 한다'는 응답을 합친 [일상적 흡연자]는 21%로 작년과 같은 비중을 보임
  - '조금, 가끔 한다'와 '아주 조금, 드물게 한다'는 응답자를 합한 [간헐적 흡연자]는 8%로 작년보다 4%p 줄어듦
- 흡연 여부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남
  - [일상적 흡연자](많이+자주) 비중이 가장 높은 성/연령대는 남자 40대(50%)이고, 다음은 남자 50대(44%)임
  - 여성의 경우 [일상적 흡연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인데, 그 비중이 11%에 그쳐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또한 [일상적 흡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서울, 충청, TK △자영업, 블루칼라 등임
- 비흡연자 비중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5060세대 △호남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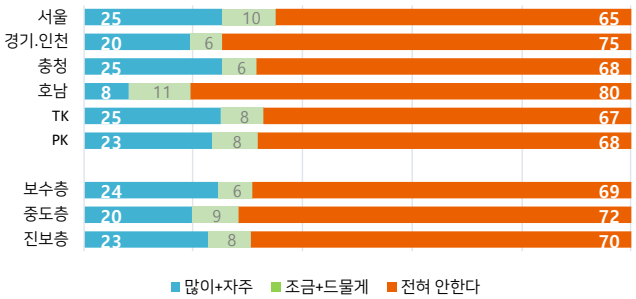
평소 흡연 정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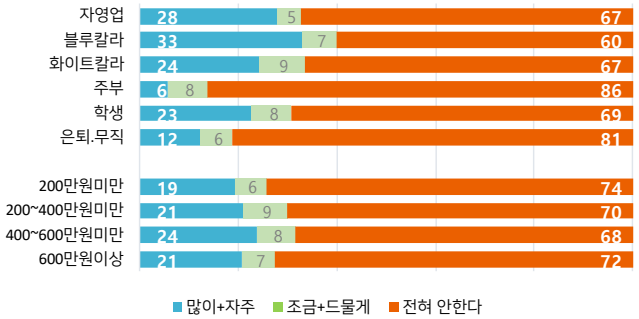
평소 흡연 정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평소 흡연 정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평소 흡연 정도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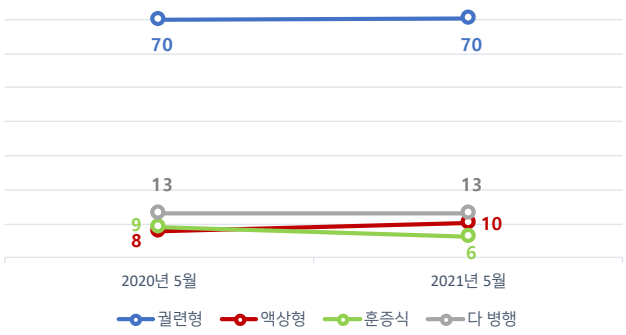
☑ 『OECD 보건통계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평균(17.0%)과 유사한 17.5%로 28개국 중 11번째로 흡연율이 높음(1위는 그리스로 35.0% / 2018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 비율)

☑ 성별로 보면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지만, 남성 흡연율은 30.5%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아 본 조사 결과에서처럼 남녀 간 흡연율 격차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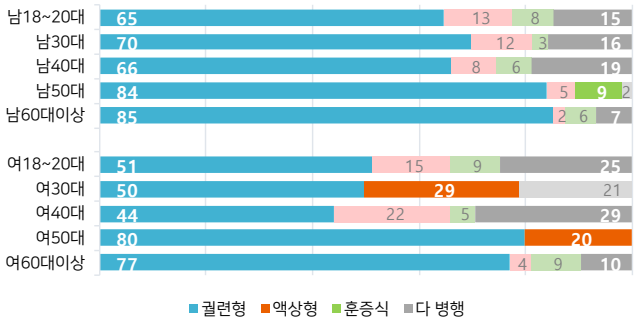
❑ 흡연 방법 : '궐련형' 압도적 비중 유지, '액상형' 소폭 증가

- 흡연자들만을 대상으로('많이+자주'와 '조금+드물게'를 합친 흡연자 전체) 흡연 방법을 질문한 결과 70%가 '궐련형 담배'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작년과 비교할 때 70%로, 동일한 비중을 유지함
- '모두 다 병행' 한다는 의견이 13%로 역시 작년과 동일한 가운데 '훈증식 전자담배' 비중은 소폭 하락하고 그만큼 '액상형 전자담배' 비중이 상승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층은 궐련형 담배 이용 비중이 높고, 여성층은 상대적으로 전자담배(액상형+훈증식) 이용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또한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5060 세대는 궐련형 담배를 많이 이용하고, 2040세대는 전자담배(액상형+훈증식)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자 40대의 경우 궐련형 담배 이용 비중이 가장 낮고, 여자 2030세대 역시 50% 수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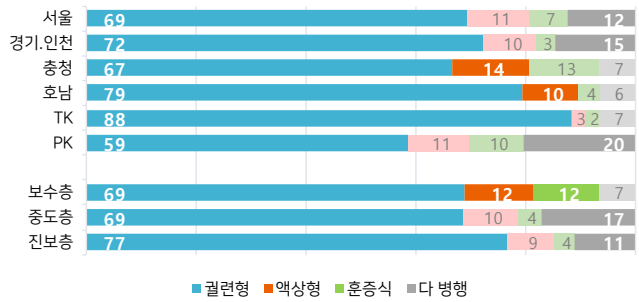
흡연 방법(흡연자만) 추이 : 흡연자 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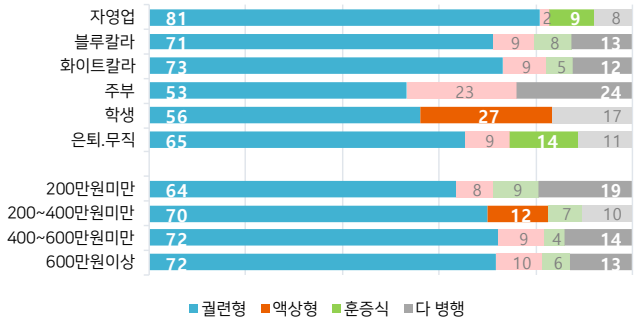
흡연 방법(흡연자만)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흡연 방법(흡연자만)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흡연 방법(흡연자만)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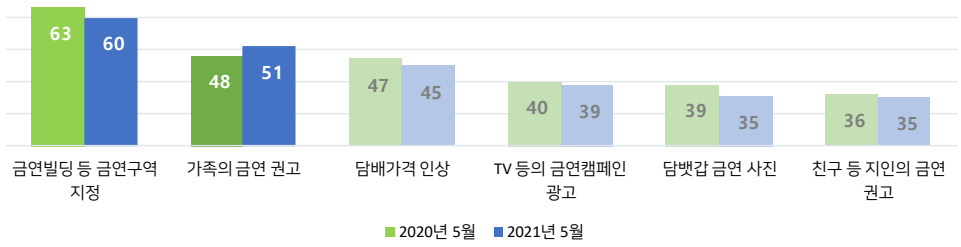
☑ 궐련형 담배 이용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여성과 2040세대를 중심으로 전자담배(액상형+훈증식) 이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적으로는 충청과 PK, 직업별로는 주부와 학생 계층에서 전자담배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이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점이 주목됨
: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우리나라 역시 전자담배 쥴(Juul)의 편의점 판매가 중단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과 젊은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선호 흐름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

❑ 금연 정책 : '금연구역 지정'과 '가족 금연 권고'만 긍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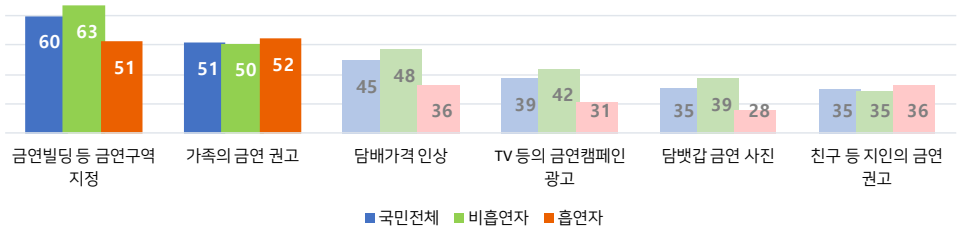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흡연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정부 주도로 다양한 금연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책 실효성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음
- 각 정책에 대해 '효과 있다' vs '효과 없다'를 질문한 결과 '효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정책은 '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60%)과 '가족의 금연 권고'(51%)에 그침
- 그 외 정책들은 모두 '효과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작년에 비해 긍정평가율이 소폭 하락함

금연정책별 실효성 긍정평가율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 금연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흡연자만 놓고 보면, '효과 있다'는 의견이 더욱 낮아짐
  - 전반적으로 흡연자의 실효성 긍정평가율은 국민전체, 비흡연자 모두에 비해 낮음
  - 흡연자의 긍정평가율은 '금연구역 지정'과 '가족의 금연 권고'만 소폭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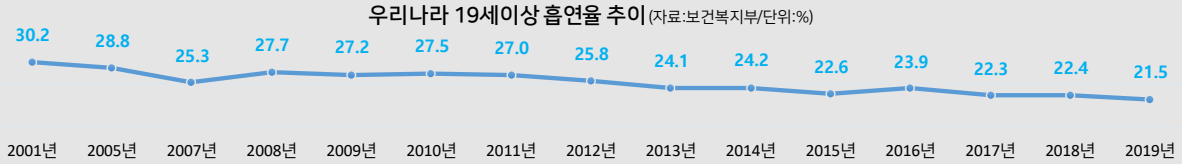
비흡연자, 흡연자 금연정책별 실효성 긍정평가율 비교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Kstat Point

☑ 우리나라 19세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꾸준히 하락, 정부의 금연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 19세이상 흡연율 추이 (자료:보건복지부/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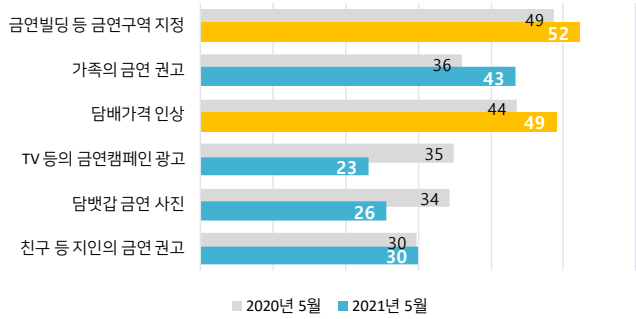
☑ 하지만 금연정책 실효성 평가에 있어 '금연구역 지정'과 '가족의 금연 권고'외에는 긍정평가율이 낮고, 긍정평가율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흡연의 건강상 위험을 강조하는(이는 상식으로 정착됨) 네거티브 정책홍보에서, 금연 시 일상의 이익(특히 가족관계)을 부각하는 포지티브 정책홍보로 초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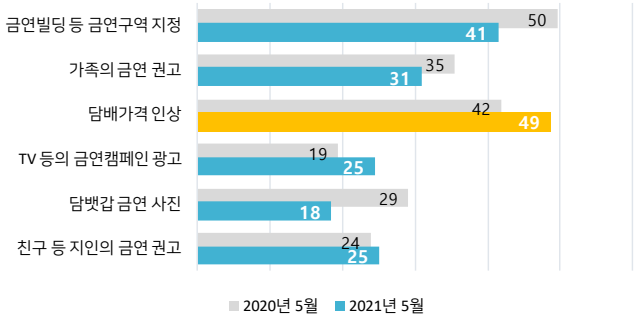
❑ 전자담배 주도 2040세대, 금연정책 실효성 부정적

- 금연 관련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성/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담배' 이용을 주도하는 2040세대와 '궐련형 담배'를 고수하는 5060세대간 인식 차이가 나타남
- 먼저 '전자담배' 주도세대인 2040세대는 전반적으로 금연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음
- 예를 들어 '금연구역 지정'의 경우 국민전체 의견은 60%가 '효과 있다'고 응답했으나, 2040세대 남녀 모두 국민전체 보다 낮은 의견을 보임
  - 특히 여자 20대와 남자 30대의 긍정평가율은 50% 미만으로, '효과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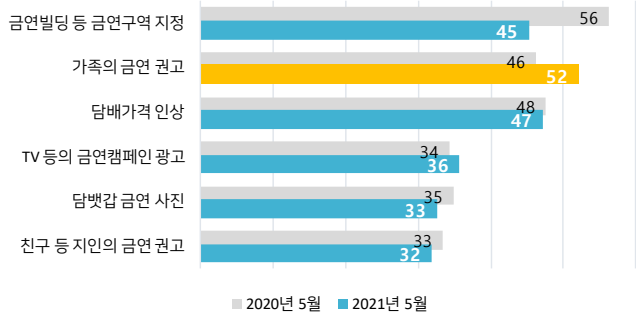
남자 18~2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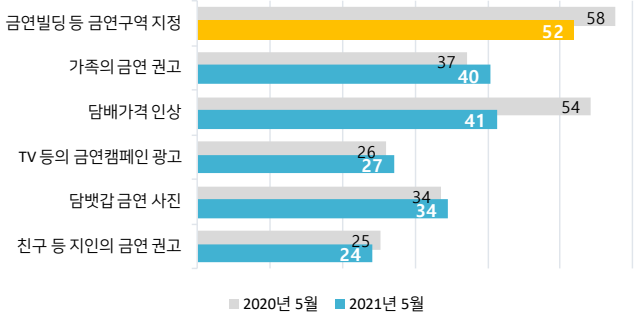
여자 18~2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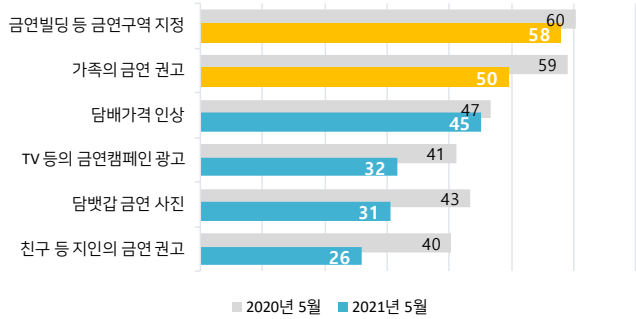
남자 3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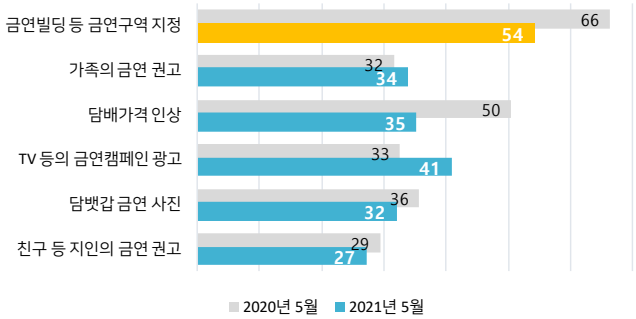
여자 3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남자 4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여자 4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Kstat Point

☑ 2040세대 남녀별로 '효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정책은 1개 또는 2개에 그침(위 그림 중 노란색 막대 부분)
☑ 또한 '효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경우라도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고 유동성을 보이는 등 불안정한 여론임
: 일례로 '금연구역 지정'의 경우 작년에 비해 긍정평가 비율이 모두 하락함(20대 남성만 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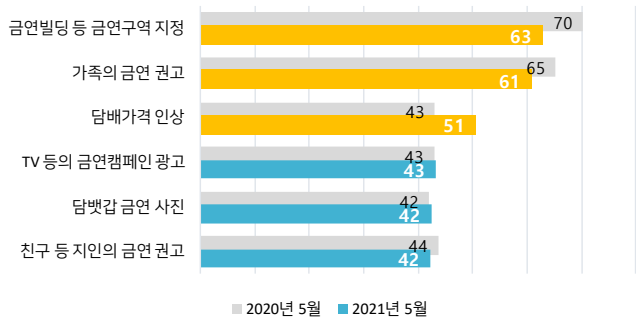
❑ 궐련형 담배 고수 5060세대, 금연정책 실효성 긍정적

- 궐련형 담배를 고수하는 5060세대는 전반적으로 금연관련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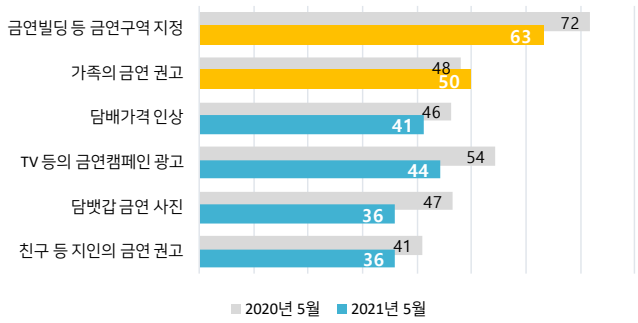
-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국민전체 긍정평가율 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 긍정평가율 : 국민전체 60% / 5060세대 남녀 모두 국민전체 이상
  - '가족의 금연권고' 실효성 긍정평가율 : 국민전체 51% / 50대 남자, 60대 남녀 모두 국민전체 이상 / 50대 여자 50%

- 또한 5060세대 남녀별로 '효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정책이 적게는 2개(여자 50대), 많게는 5개(남자 60대이상)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
  - 아래 그림에서 노란색 막대 부분이 '효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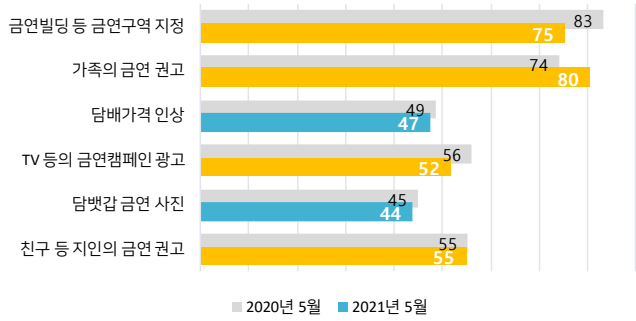
남자 5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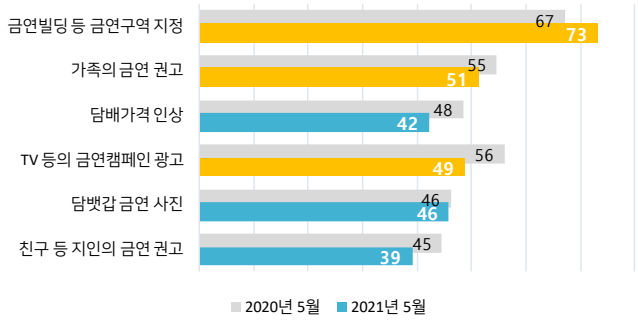
여자 50대,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남자 60대이상,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여자 60대이상, 금연정책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Kstat Point

☑ 정부 주도의 각종 금연정책에 대해 2040세대는 부정적이고, 5060세대는 긍정적인 특징을 보임
: 즉,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지금의 금연정책은 주로 5060세대에게 효과가 있고, 2040세대에게는 큰 효과가 없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연정책의 새로운 접근(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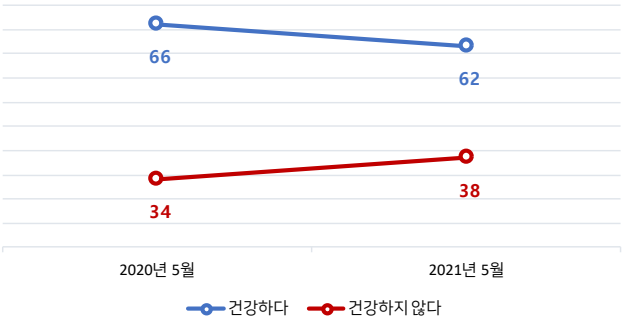
☑ 또한 금연정책과 관련된 2040세대의 여론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기에 정책수립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예를 들어 '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효과 있다'는 의견이 작년보다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불안정성에 주목할 때 내년에는 어떤 의견이 우세할지 단정하기 어려움
: 이에, 금연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2040세대의 특정시기 여론만 주목해서는 안되며, 전반적인 추이와 FGI 등 심층적인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2021년 '건강' 관련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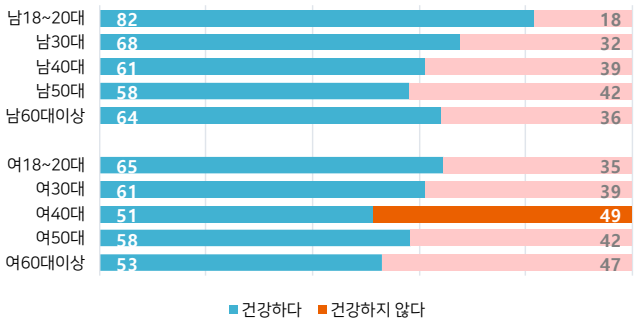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건강하다' 2년 연속 우위

- 우리 국민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하다'는 의견이 작년 66%에서 올해 62%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건강하다'는 의견이 우위를 보임
- 거의 모든 계층에서 '건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18~20대 △서울, 호남 △화이트칼라, 학생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 등임
  - 남자 18~20대의 경우 모든 계층에 걸쳐 '건강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82%)
- 이에 비해 '건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임
  - 또한 '건강하다'는 의견과 '건강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여자 40대 △충청권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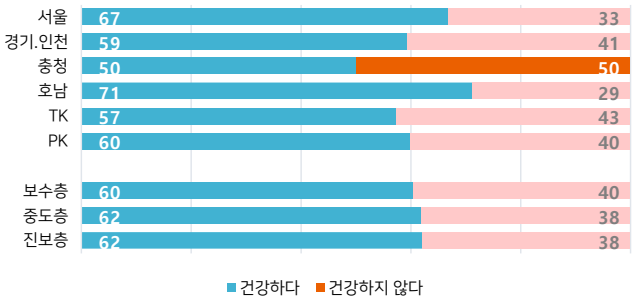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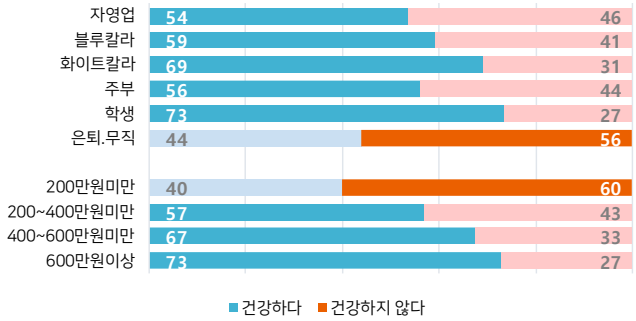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직장별,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단위:%)



Kstat Point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젊은층이 노년층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함
: 남자 18~20대의 '건강하다'는 비중이 가장 높고, 여자 60대이상의 '건강하다'는 비중이 두 번째로 낮음(여자 40대가 가장 낮은데, 그 차이가 2%p에 불과해 사실상 가장 낮다고 봐도 무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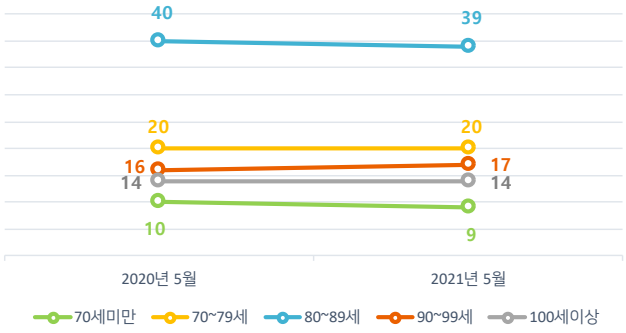
☑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생각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건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데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건강하다'는 의견이 73%로 매우 높음

☑ 즉, 건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성/나이와 소득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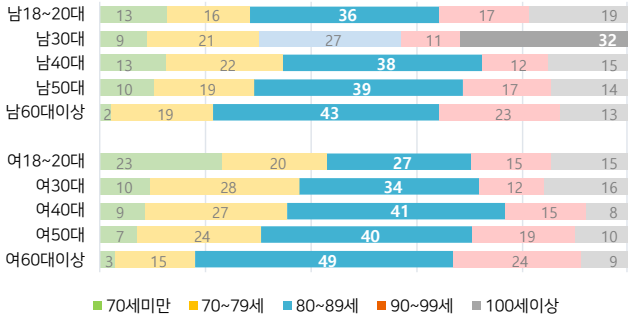
❑ 기대 수명, 80대가 2년 연속 가장 많아

-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기대 수명은 작년에 이어 80대가 가장 많았음
  - 작년에는 40%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별다른 차이 없이 39%를 기록함
- 다음으로 70대(20%), 90대(17%), 100세이상(14%), 70세미만(9%) 순으로 조사됨(순위는 작년과 동일)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8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비중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충청권 △보수층 △주부 등임
- 한편, 남자 30대와 학생 계층의 경우 100세 이상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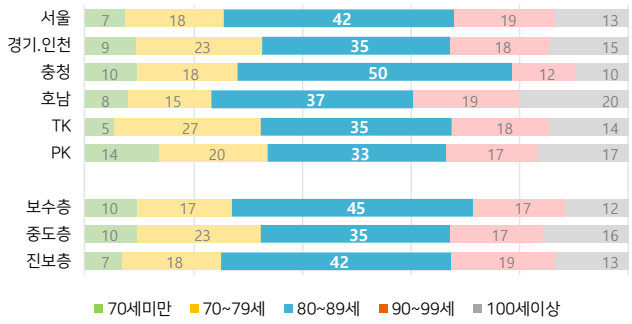
기대 수명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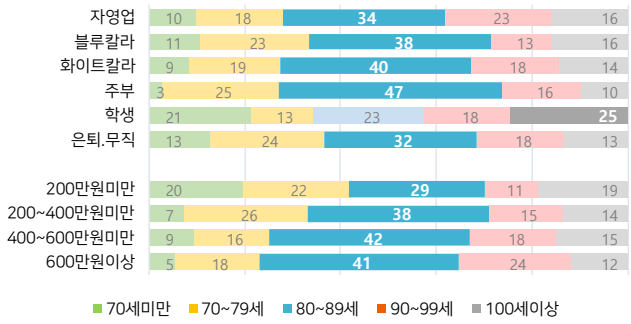
기대 수명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기대 수명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기대 수명 : 직업별,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Kstat Point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5.7%인 고령사회이고,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통계청, 5월 11일 발표)
: 이러한 고령화 사회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희망하는 기대 수명은 80대로 맞춰지는 것으로 보임

☑ 문제는 고령화 사회 흐름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구조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정년'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정년퇴직 후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함
: 노후의 안정적 수입원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만 62세에서 2033년까지 만 65세로 늦춰지게 되어, 현 상태로라면 정년 퇴임 후 연급 수급까지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됨

☑ 최근 '정년 연장'(65세까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해, 향후 대통령 선거 시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정년 연장' 이슈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갖고 있어, 대선시기 쟁점이 될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즉, 세대별(젊은층과 고령층) 생각이 다르고, 기업과 노동자 간, 노동자 고용형태별(대기업·공무원·공공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로 생각과 입장이 달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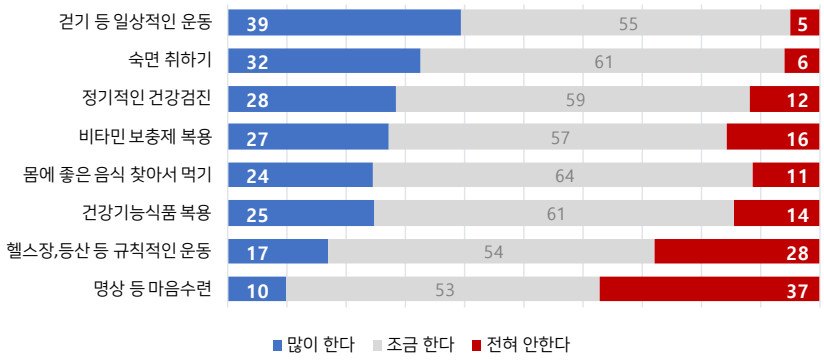
❑ 건강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지속 돼

-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많이' 노력하기보다 '조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작년과 올해 매우 비슷함

- 항목별로 자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 정도를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많이 한다'는 응답보다 '조금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많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은 '걷기 등 일상적인 운동'(39%)이고, 다음으로 '숙면 취하기'(32%), '정기적인 건강검진'(28%), '비타민 보충제 복용'(27%) 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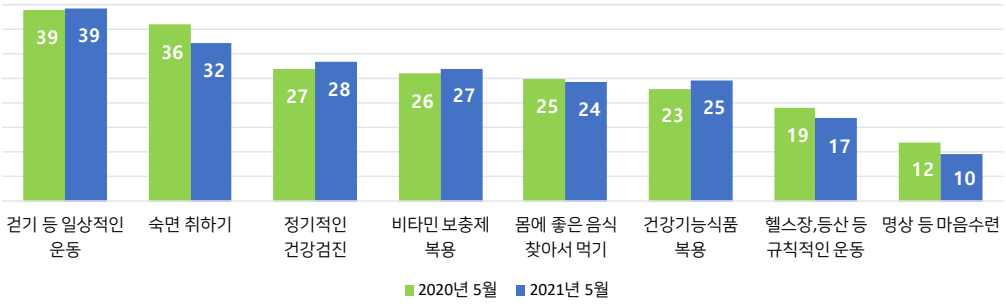
2021년 항목별 건강 위한 노력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 '많이 한다'는 응답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과 올해 응답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유지됨

  - 거의 모든 항목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4%p 하락한 '숙면 취하기'가 가장 큰 차이임

항목별 건강 위한 노력 '많이 한다' 응답 추이(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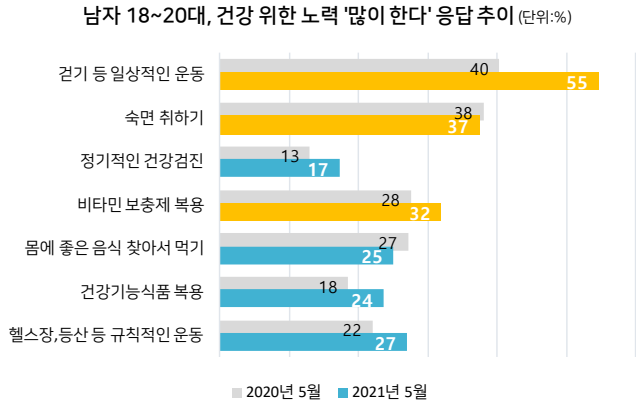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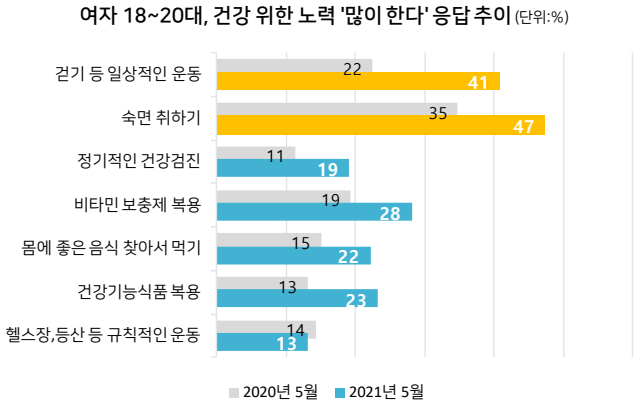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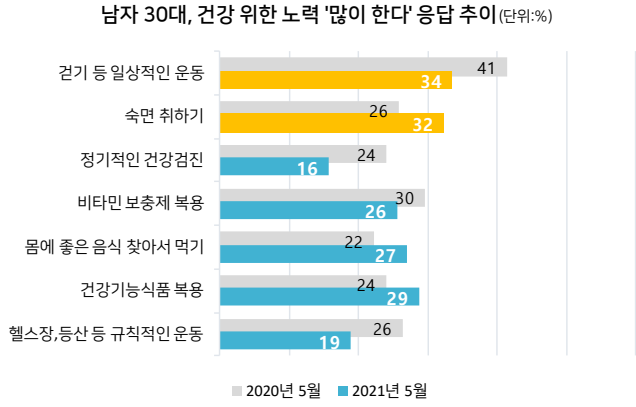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대신,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는 것으로 건강을 돌보는 경향이 있음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자료 : OECD 보건통계)
: OECD 국가 평균 6.8회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일본의 12.6회보다도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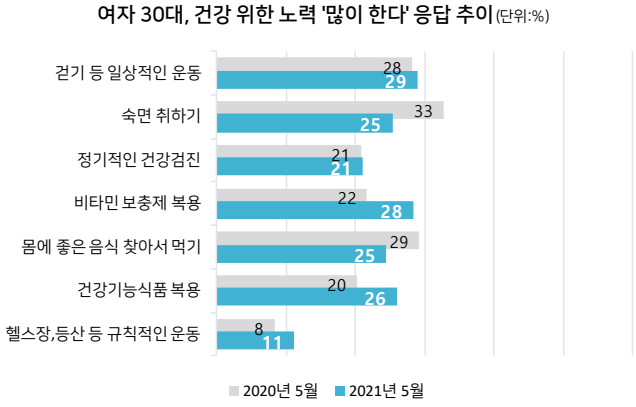
❑ 남녀 18~20대, 상대적으로 노력 많이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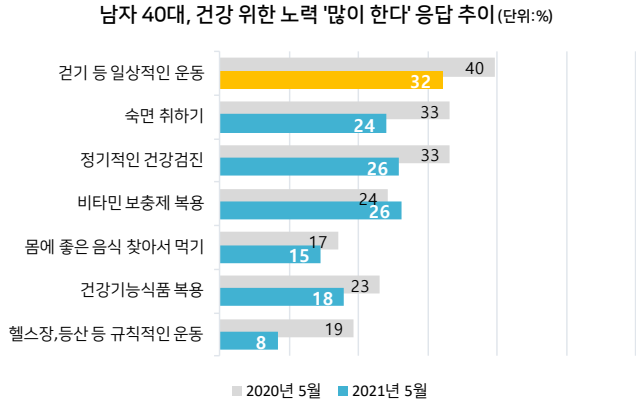
- 성/연령별로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정도('많이 한다' 응답률)를 살펴보면 남자 2030세대와 여자 18~20대가 상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노란색 막대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뜻함
- 특히 남자 18~20대의 건강을 위한 노력 정도가 가장 높고, 여자 18~20대의 노력도 비교적 높음
  - 남자 18~20대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3개이고,
  - 여자 18~20대는 3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2개지만, 2개 모두 4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임
- 이에 비해 여자 3040세대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 걸쳐 낮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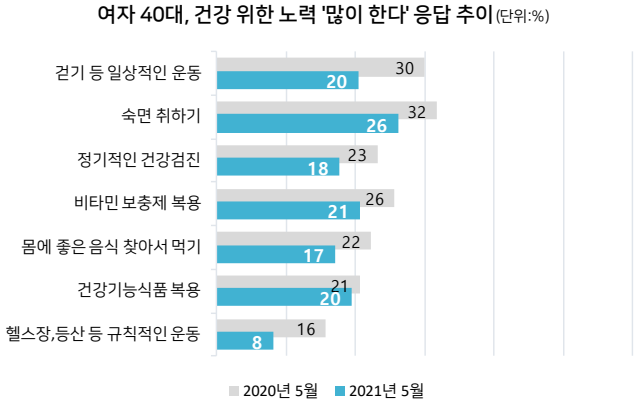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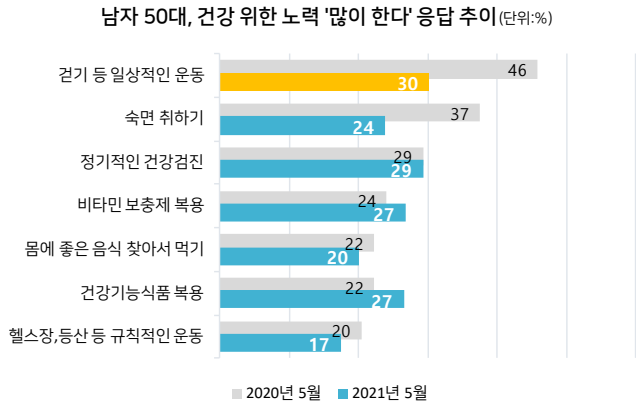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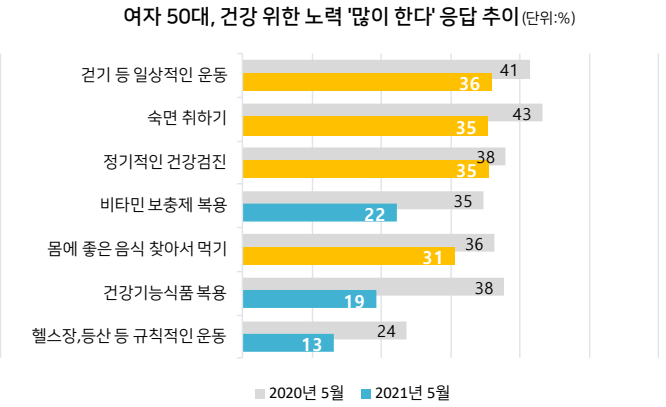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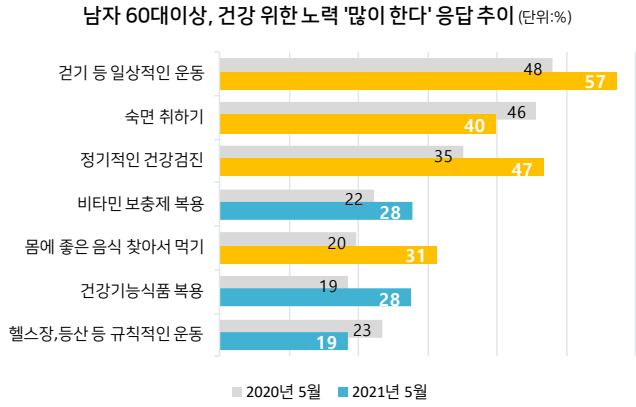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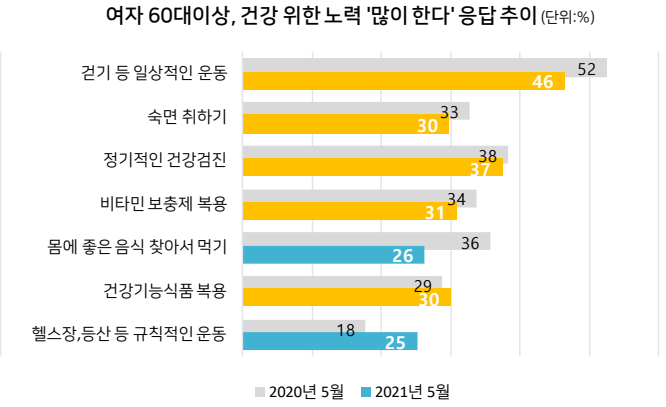
❑ 여자 50대, 남녀 60대이상도 노력 많이 해

- 5060세대를 살펴보면, 여자 50대와 남녀 60대이상 연령층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률이 3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다른 성/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음
- 특히 남자 60대이상의 경우 4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3개로, 노력의 강도면에서 모든 성/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남자 50대의 경우 3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1개에 그치는 등 건강을 위한 노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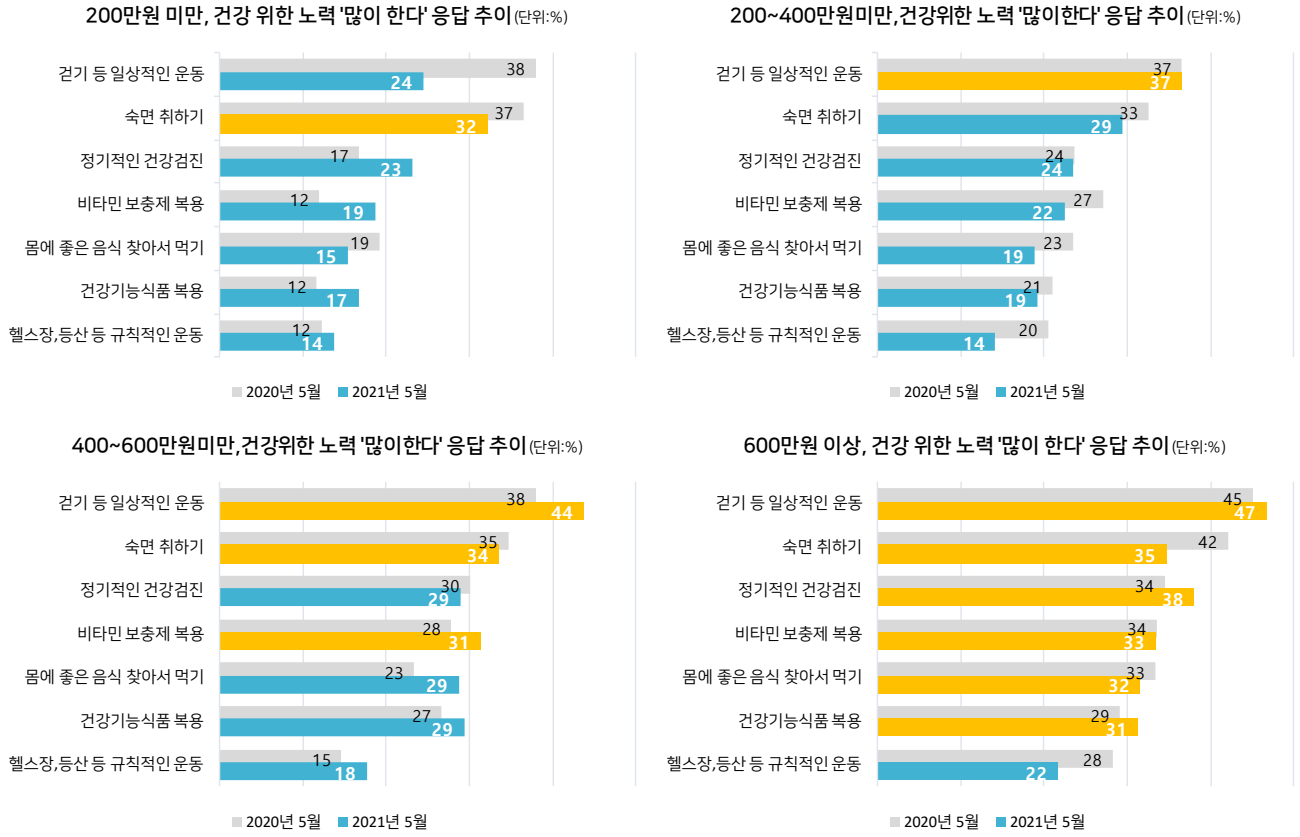


Kstat Point

☑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특히 낮은 성/연령대는 여자 3040세대와 남자 4050세대임
☑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성/연령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로 평가받고 있음
☑ 이러한 세대특성이 건강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OECD 국가별 연간 노동시간(2019년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임(1967시간)
: OECD 평균 (1726시간)에 비해 241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소득 많을수록 노력 '많이 한다'

- 가구소득별로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경향이 뚜렷함
- 노력을 '많이 한다'는 비율이 30% 이상을 보인 항목을 보면(노란색 막대), 소득이 높을수록 항목이 많아지고, 수치도 높아지고 있음



Kstat Point

☑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소득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즉, 소득이 높을수록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응답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 문제는 건강수준에 따라 고용률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생애 기간 동안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임
: OECD에 분석결과, 건강수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40대에서는 25%, 60세 이상에서는 50%이고, 이러한 고용률 차이는 소득 차이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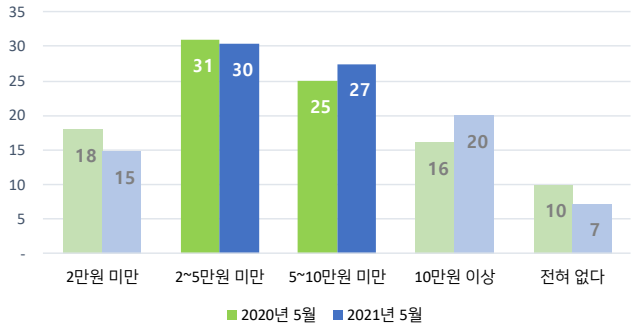
☑ 또한 고소득층은 더더욱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저소득층은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못 하는 악순환에 빠져 불평등이 심화·고착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임

◤ 건강과 '우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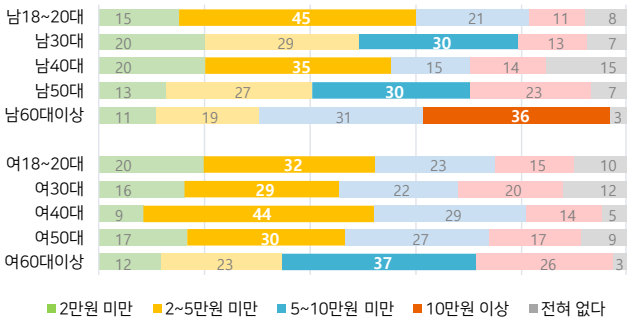
❑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2~5만원 가장 많아

-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을 질문한 결과 '2~5만원 미만'이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0만원 미만'(27%), '10만원 이상'(20%), '2만원 미만'(15%), '전혀 없다'(7%) 순으로 나타남
  - 작년과 비교하면 1위(2~5만원)와 2위(5~10만원)가 같고, 이하 순위에 작은 변화가 있는 수준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2~5만원 미만'이 1위를 기록한 계층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남자 18~20대, 남자 40대, 여자 2050세대 △경기.인천, 충청, 호남, TK, PK △중도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2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5~10만원 미만'이 1위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50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보수층, 진보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주부 등임
- 한편, '1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계층은 남자 60대이상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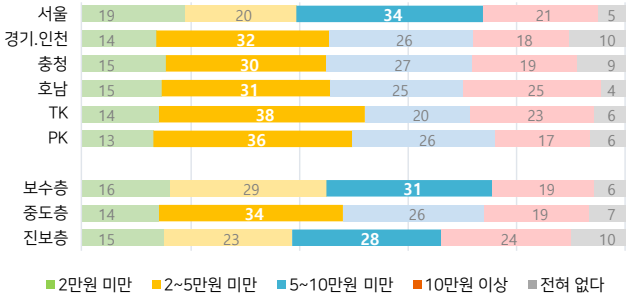
자기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추이 : 국민전체(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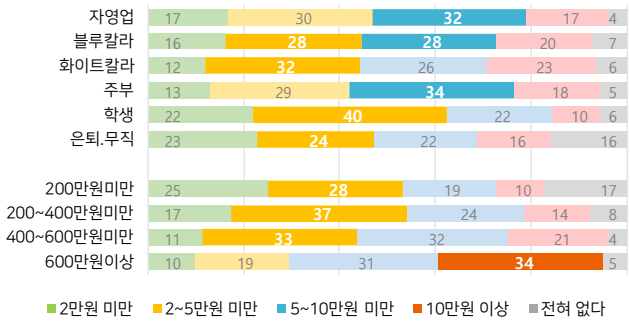
자기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 성/연령별(단위:%)



자기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자기 건강 위한 한 달 지출 비용 : 직업별,소득별(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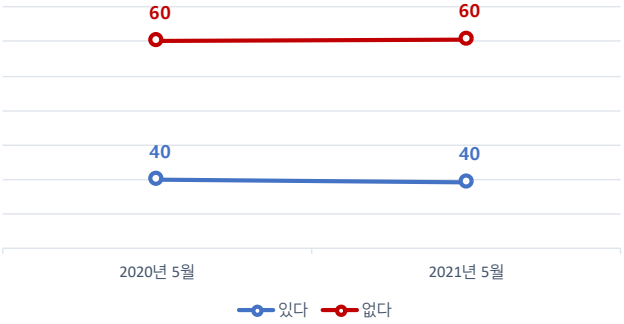
☑ 건강을 위한 지출에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2만원 미만' 응답과 '전혀 없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음
: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10만원 이상' 응답이 높아지는 등 소득과 건강 지출 비용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OECD는 건강과 소득 불평등간의 연계를 끊고 노동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한 기회제공,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성 등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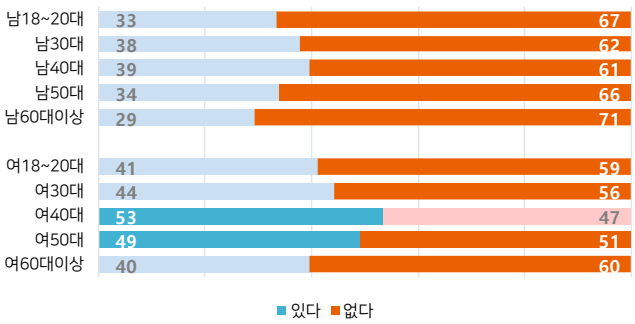
❑ 건강 관련, 우울한 경험 '있다' 40%

-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관련 활동을 하지 못해 우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40%이고, '없다'는 응답은 40%로 조사됨
  - 작년과 비교할 때 국민전체 수치가 동일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5060세대 △호남 △화이트칼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 이에 비해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4050세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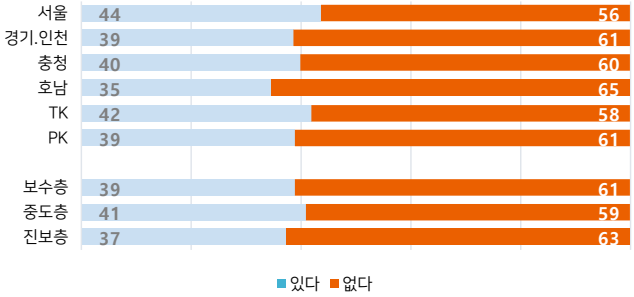
건강 않거나 건강활동 못해 우울한 경험 추이 : 국민전체(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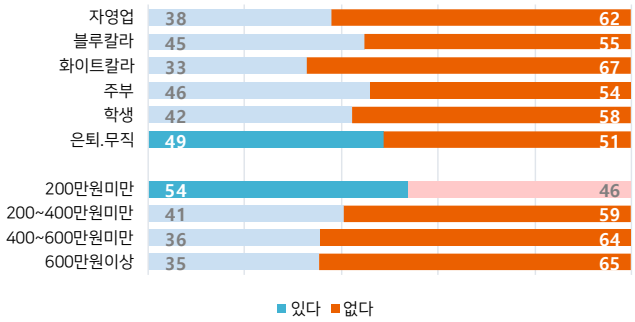
건강 않거나 건강활동 못해 우울한 경험 : 성/연령별(단위:%)



건강 않거나 건강활동 못해 우울한 경험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건강 않거나 건강활동 못해 우울한 경험 : 직업별,소득별(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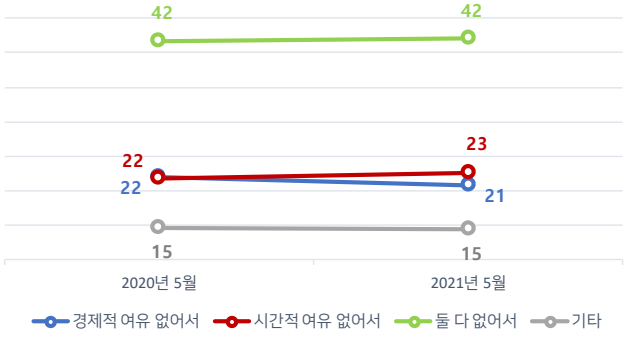
☑ 건강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을 심화·고착시키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번 조사에서 보듯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관련 활동을 못해 우울을 경험한 국민은 40%에 달함

☑ 또한 건강은 행복/불행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
: 국민들은 '행복' 연상 단어 중 세 번째로 '건강'을 꼽았고, '불행' 연상 단어로는 '건강문제.질병'을 첫 번째로 꼽음
: 참고로 '행복' 연상 단어 1위는 '가족.가정'이고, 2위는 '여유.여행'이었고,
: '불행' 연상 단어 2위는 '빈곤.경제적 어려움'이고, 3위는 '슬픔.외로움' 이었음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2호 『'행복' 관련 국민의식 심층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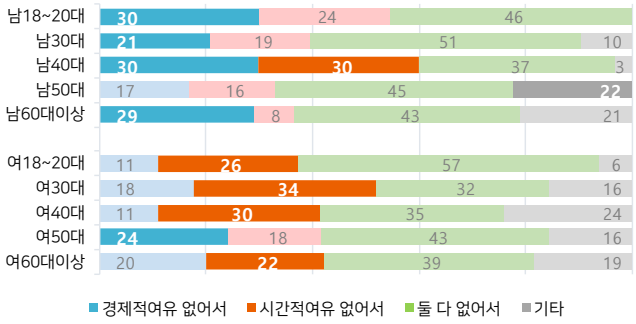
❑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 '경제적 · 시간적 여유 없어서'

- 앞서 응답에서 '우울'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42%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 없어서'가 23%, '경제적 여유 없어서'가 21%, '기타' 15% 순으로 조사됨
  - 작년과 비교해 응답 결과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거의 모든 계층에서 '경제적·시간적 여유 없어서'가 1위를 기록했으며, 일부 계층에서는 '시간적 여유 없어서'가 1위를 기록함(여자 30대, TK, 600만원 이상 소득계층 등)
- '경제적·시간적 여유 없어서'를 제외하고 '경제적 여유 없어서'가 높은 비중을 기록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대 △경기.인천, PK △보수층 △블루칼라, 학생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역시 '경제적·시간적 여유 없어서'를 제외하고 '시간적 여유 없어서'가 높은 비중을 기록한 계층은 △여자 2040세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충청, TK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주부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 등임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 추이(우울 경험자만) : 응답자전체(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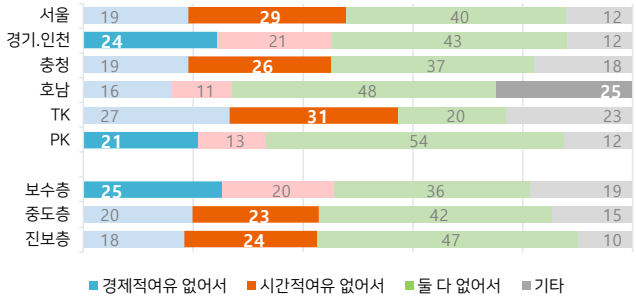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우울 경험자만) : 성/연령별(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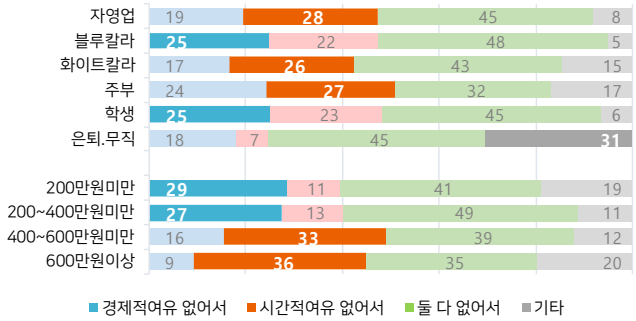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우울 경험자만)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



건강 활동 못하는 이유(우울 경험자만) : 직업별,소득별(단위:%)



Kstat Point

☑ 건강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 모두가 필요하고 '우울'을 경험한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두 가지 모두가 부족해서 건강관련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 '둘 다'를 제외한 결과를 보면 남성은 경제적 여유 부족을, 여성은 시간적 여유 부족을 꼽은 특징이 나타남

☑ 또한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으면 경제적 여유 부족을, 소득이 높으면 시간적 여유 부족을 꼽은 특징을 드러남

Kstat 케이스탯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28호] 발간 안내

28호는 『'공분'에 대한 국민의식 심층 분석』
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